

유럽의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정책동향

통신방송연구실 주임연구원 이승훈
(T. 570-4491, sky@kisdi.re.kr)

1. 개요

전파이용이 일상생활 전반에 확산되고, 전파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향후에는 전파이용 환경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더욱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초기의 전파통신은 독점산업으로 인식되어 전파자원은 중앙집중식으로 관리되었으나, 이후 통신시장이 자유화되면서 많은 전파통신 사업자가 시장에 진출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자유화는 각 국가의 기존 통신관련 법규를 재검토하여 새로운 법규를 도입하는 시초가 되었다. 새로운 법규는 자유화된 통신시장의 효율적인 기능을 보장하고, 관리에 있어 독립된 규제기관을 포함해서 새로운 규제의 틀을 마련하도록 유도하였다.

본 글에서는 전파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희소한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다양한 규제의 틀 중에서 주파수의 회수 및 재배치 정책동향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주파수 회수 또는 재배치에 대한 개념과 절차, 유럽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주요내용

일반적으로 전파관리는 각 국가에서 별도의 기관이 자국 및 국제적인 수준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파관리는 많은 이용자들이 간섭 없이 전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파수 계획 및 분배, 기술 개발, 시장 감시, 국제적인 조율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도 전파관리의 수단으로 새로운 시장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과 주파수 사용의 국제적인 조율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주파수 회수 또는 재배치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다. 우선 ITU-R에 의하면, 주파수 회수 또는 재배치(Redeployment)는 특정 주파수 대역에 대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기존의 주파수 할당을 취소할 목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인 조치를 의미하고, 주파수 대역

은 동일 서비스 또는 다른 서비스로 할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 진행될 수 있다. 다음은 1999년 ERC(European Radiocommunications Committee) 보고서에 의하면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Refarming)는 주파수 관리 기관이 새로운 용도 또는 효율적인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재할당(reassignment)의 목적으로 기존의 이용자로부터 주파수를 회수하는 전파관리의 기능이며 물리적인 절차를 의미한다.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는 주파수 사용에 있어 기술 조건의 변화, 시스템의 변화, 다른 서비스로 할당의 변화 등 기존 규정의 변화를 포함하는 절차이다. 대부분 기존의 기술을 더욱 새롭고 진보된 기술로 자연스럽게 대체하는 경우에는 기존 이용자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으므로 관련절차는 수월하게 진행된다. 그러나 회수 및 재배치가 기존 주파수 할당을 강제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즉 기존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조치에 대한 거부, 법적인 소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회수 및 재배치는 두 가지의 연속적인 절차에 따라 수행되는데, 우선 회수 및 재배치의 조치가 취해질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고, 다음에는 회수 및 재배치의 시행 결정 이후,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한편, 회수 및 재배치는 행정적인 관리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와 시장에서 이용자간에 자유롭게 주파수 거래를 통해 시행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위의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의 절차와 시행의 경우를 고려하여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절차 비교

	행정적 관리에 의해 시행	주파수 거래를 통해 시행
회수 및 재배치 결정을 위한 고려사항	법적 기준, 재정적 기준, 정치적 기준, 사회-경제적 기준, 기술과 효율성 기준 등 다양한 기준에 대해 전반적인 분석이 수행되고, 규제기관에 의해 결정됨	주로 사업적 기준과 재정적 기준을 고려하여 이용자간에 분석이 수행되고, 주파수 이용권자에 의해 결정됨*
회수 및 재배치 결정 후 적절한 방법 선택	- 주파수 사용의 유인 가격화** - 면허기간 종료 - 자발적인 반납 - 기존 이용권자 보상 - 장비 재조정(re-tuning) 등	- 이용자간의 계약(Contract)

주: *: 규제기관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음

** : 유인 가격화는 비효율적인 기술이나 혼잡대역의 경우 전파사용료(spectrum fee)를 높게 부과해서 다른 대역으로 이전을 유도함

자료: ECC, "Refarming and Secondary Trading in a changing Radiocommunications World", 2002. 9

행정적 관리에 의해 회수 및 재배포가 고려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공유(sharing) 가능성과 적당한 대안이 되는 대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며, 이후 규제기관은 다양한 고려사항을 검토하고 가장 적절한 회수 및 재배포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시장에서 주파수 거래를 통해 이용자간에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사업적, 재정적 요인이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며, 주파수 거래와 관련해서는 규제기관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유럽국가에서 주파수 거래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아직 주파수 거래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

현재 주파수 회수 및 재배포는 행정적 관리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앞의 <표>의 회수 및 재배포의 방법 중에서 기존 이용자에 대한 재정적 보상의 경우도 다음의 네 가지 경우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째, 기존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둘째, 신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셋째, 국가의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 넷째, 행정적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있다.

회수 및 재배포에 대한 국제기구의 권고 또는 공지기간(notice period)이 긴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재정적인 보상 없이 스스로 부담하는 것으로, 스위스와 영국에서 시행한 사례가 있다. 신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신속한 이전이 필요한 특정 서비스의 경우에 해당하며, 이탈리아의 GSM 1800 도입과 관련하여 새로운 사업자는 국방부(The Ministry of Defence)에게 재정적 보상을 하였다. 국가의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공재정, 모든 면허 소유자, 주파수 가격화/경매 수익, 신규 사업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금을 구성하여 기존 사업자에게 보상을 하는 것으로 프랑스와 헝가리에서 실시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별도의 위원회를 두어 회수 및 재배포에 관한 재정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주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적으로 지불하는 경우는 회수 및 재배포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방법이다.

3. 시사점

국내의 경우도 전파관리의 수단으로 전파법에 이용실적이 저조한 주파수의 회수 및 재배포에 대한 규정을 두어 시행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파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회수 및 재배포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조치가 전파를 사용하는 기존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조치에 대한 거부, 법적인 소송 등의 문제를 야기 시켜 오히려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 도입의 지연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회수 및 재배포 결정을 위해서는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고, 회수 및 재배포

치 결정 이후 선택되는 적절한 방법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주파수 대역이 새로운 용도로 할당되는 경우에는 기존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재정적인 보상은 회수 및 재배치의 시행에 있어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 국가들은 서비스의 특징, 절차의 신속성, 충분한 공지기간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기존 이용자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적인 보상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기존 이용자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프랑스의 경우처럼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1] ERC, "The role of spectrum pricing as a means of supporting spectrum management", 1999. 9
- [2] ECC, "Refarming and Secondary Trading in a changing Radiocommunications World", 2002. 9

영국의 다채널방송 시장현황

통신방송연구실 책임연구원 한은영
(T. 570-4236, hey@kisdi.re.kr)

1. 들어가는 말

영국의 다채널방송 시장은 7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성장하였다. 적어도 15개 채널 이상을 수신하는 전체 가구 수는 1996년 530만 가구에서 2003년 3월말에는 1,200만 가구로 증가하였다. 이 다채널 시장 가운데 85%가 디지털 서비스를 수신하며, 영국의 디지털방송은 세계 어느 나라의 그것보다 빨리 보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발표된 영국의 ITC(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 자료를 바탕으로 영국내 다채널방송 시장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다채널방송 시장현황

영국의 전체 가구 중 약 50%에는 아날로그 혹은 디지털 채널이 최소한 15개 이상 제공된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1995년에는 전체 가구의 약 25%만이 가능했던 일이었다. 이러한 성